

전통한지 명성, 흑석골에서 부활한다

전주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시설·체험관·전시관 등 갖춘 한지테마시설 건립 계획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인 전주시 흑석골 일대에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과거 전통한지의 주요 생산지로서 전주한지의 뿌리가 된 흑석골에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복원되면,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세계화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인 전주한지를 온전히 복원 및 보존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의 버스위원회 전체회의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20일 전주시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민의 버스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한지공예 산업 활성화, 한옥마을 등 인근 유·무형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한지공예 산업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한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지장 선정과 전통한지 생산체계 구축, 전주한지 공동판매장 조성, 전주한지 샘플북 제작 등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세계화에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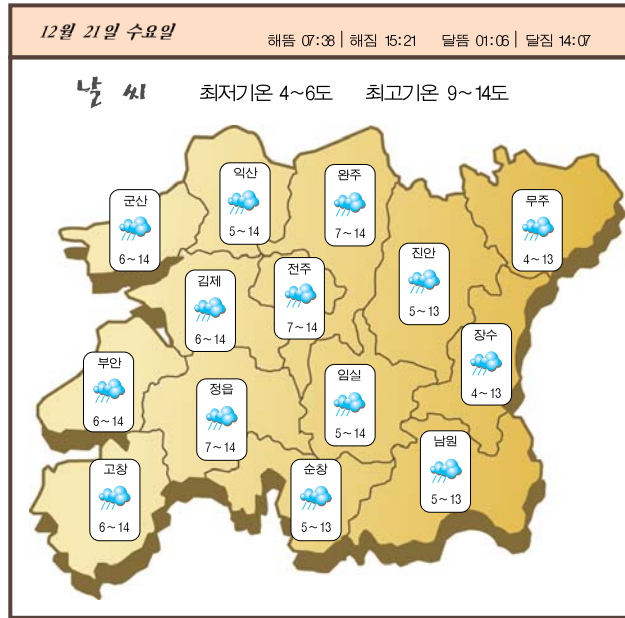
특히 지난 5월에는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전주 전통한지 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1월에는 한지장(韓紙

匠人)도 최초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및 전통한지 원류 복원을 통해 한지산업을 육성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통해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보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2017대입 정시지원 대면진학상담실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2017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대면진학상담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대입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에서 대면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의 경우 도교육청 7층 대입지원실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군산과 익산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22~28일 이틀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면상담에는 전북 대입 진학

상담 교사단 31명이 참여하며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장소에서 정시 지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수능" 여파로 2017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은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대입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상담선생님들이 대면진학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지원전략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통해 순차적 지원 방안 추진해 나가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사진)은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동 의원(완산동, 중화산 1·2등)은 20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4년 도서정가 10% 할인을 고정화 한 현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 이후에도 우회적인 판촉·할인 마케팅 경쟁이 횡행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서점에 전가되는 형국”이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고 도서 시장이 가파르게 재편되면서 전주의 상징적 서점이었던 민중서관을 비롯한 곁출한 지역 대표서점들을 문을 닫았고, 2011년 128곳에 달하던 지역 서점들은 현재 83곳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도서 구입 시 기존 최저 낙찰 제도에서 우선 조달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뒤로 ‘베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자책 없는 도서 납품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지역 서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이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효과가 지역 서점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지역 서점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판법적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의 경우 올해 전국 최초의 ‘지역서점 인증제’와 함께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 교육청과 서점조합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형서점·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한 지역 서점 우선 조달계약의 무효화했다. 의정부시도 2014년부터 도서관과 서점의 멤버십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 서점과 우선 조달계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 서점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 의원은 먼저 지역서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계획 및 지원 범위 등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명시하고, 순차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내년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7년도 전라북도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을 공개시험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등은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중등특수 5과목과 초등은 초등특수를 공개시험 시험으로 치르고 일반사회 외 12과목(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보건 전문상담, 초등교육)은 학교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등재한다.

도교육청은 작년년부터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명목외 교직원 등 재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내년도 공립 초·중등 임용시험 1차 및 전라북도 사립학교 연합회 주관 임용시험 1차 시험 이상 합격자를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등재할 수 있게 하여 학교에서 우수한 기간제 교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시원서는 19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시험은 내년도 2월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2월8일 오후 2시에 합격자를 발표하며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재는 2월9일부터 2월10일 까지 2일간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코너에 본인인 직접 등재한다.

정해은 기자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